

정치경제학의 새 지평 연 '조절이론'

마르크스시즘의 이론적 무기력증 탈피...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정명기

한남대 · 경제학과 교수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환

기존의 패러다임의 위기와 정체에 대한 예감과 비판이 깊어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과학혁명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은 지적 무기력증이 오랫동안 정치경제학계를 지배하여왔다. 조절이론의 등장은 이로써 새로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이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제까지 찾아왔던 이론적 습성을 반성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타성에 대한 조절이론의 비판의 칼날은 우선 개념실재론적 분석 방법을 향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이나 레닌의 '제국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제3세계이론가들의 '종속'은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상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태의 현실을 담았던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론가들은 여전히 죽어버린 개념들에 얽매어서, 살아움직이며 변화하는 현실을 그 개념에 의거하여 재단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조절론자에 따르면 개념이란 현실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다른 현실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이 사용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실재하는 것은 현실이지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굳어버린 이론가들은 현실을 취하기 전에 개념을 취하여 현실을 개념의 관철, 실현 또는 자기전개로서 받아들인다. 한국자본주의의 구체적 현실을 낱낱이 헤아리기 전에 '제국주의', '종속',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을 먼저 학습하고 그 개념의 보편성에 맞게 한국의 현실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론가의 과제로 정착했던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랑 리피에츠는 「기적과 환상」(김종환 외 옮김, 한울 1991)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인식론에 기초하여 주변부의 성격을 종속의 결과로 간주하거나 또는 구체적 상황을 종속, 제국주의라는 도식에 억지로 짜맞추는 식의 작업을 반대한다.

물신화된 개념의 위광 앞에서 실재하는 현실은 빛을 잃고 개념의 질서에 따라 그 위치를 배정받는 하급자로 전락하였다. 보편을 모르고서는 특수와 구체를 알 수 없다는 식의 사고가 빠져버린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긴 충고가 필요없다고 조절이론가들은 생각한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사과이지 과일 일반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른바 구체적인 것의 구체적인 분석이란 "이 사과는 과일이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성의 총체를 가능한 최대한대로 사실 자체를 따라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주의적 이론가의 직분은 진리란 살아움직이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현실 앞에 완전무결한 참이론을 제시하려는 야망을 갖지 않는 겸손함에서 출발한다. 과학이론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종교적 독단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민에게 아편"임은 이미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대중은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서 이 아편(자본주의의 자체모순에 의한 필연적 붕괴)은 팔리지 않는 아편일 뿐이다.

조절이론의 방법론적 전환은 소위 "자본주의 발전의 내적 필연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논리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객관적 구조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행위하는 인간에 대한 규정자로서의 구조는, 변화와 발전의 논리까지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는 식의 사고에 의하면 역사란 하나의 체계이며, 역사발전이란 체계의 질서가 노정하는 필연성 자체이다. 그리하여 이 필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론가의 제일의 임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것으로서 포착되는 총체성으로써의 역사란 사변철학의 미망일 뿐 현실과학의 이론적 목표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법적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개념의 상상한 가치가 아니라 수많은 주체들이 맞부딪혀 그 운동 방향을 감히 법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풍부한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필연이 낱실이라면 우연은 씨실이다. 그럼에도 필연의 노예가 된 이론가들은 현실은 필연의 相下에서 볼 때에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며, 불확정적이고 우연적인 모든 것을 중요치 않은 무언으로 취급해버린다.

그러나 조절이론가에 따르면 역사란 수많은 주체가 상호간의 투쟁으로서 구성해내는 거대한 구성체이다. 때문에 조절이론가들의 관심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나 구조주의의 인식론을 부정하면서 개인(사회적 행위자로서의)의 궤적이 구조의 재생산에 대해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의 실재성은 구조와 개인 모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구조뿐 아니라 행위자의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예컨대, 조절양식, 축적체제)의

조절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직면한 이론적

무기력증을 벗어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개방적 성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증핵을 유지, 강화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연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과 인식론은 아그리에따에 의해 처음 제기되어졌고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NLB 1979) 리피에츠에 의해 정교화되어졌다. 봄 제습은 「조절이론의 회고와 전망」(사회경제평론 3, 한울 1991)이라는 글에서 조절학파의 방법론적 특징을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절이론의 중심과제

조절이론은 이미 「자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축적에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사회적 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자본주의가 재생산과 축적과정을 유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개념실재론과 사실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양식론에 기초한 '논리'의 법적 확산으로 역사를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상부구조' '토대'라는 환원주의적 모델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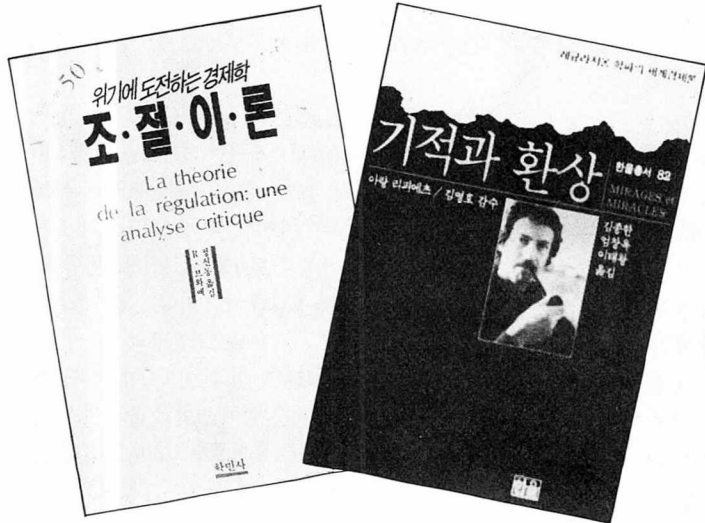
아그리에따에 의한 조절이론의 연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힘이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제도의 장기적 응집력을 보장하는가? (2) 이러한 응집력의 조건과 양식이 진보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가? (3) 어떤 조건과 과정이 생산적 관계에서 질적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4) 자본주의 발전에서 단계설정이 가능하며, 그 단계구분을 생산양식의 구조적 위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5)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내에서 다른

역사적 변화의 결과이고, 이 위기가 미래의 계급투쟁에 관한 가설을 위해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아그리에따, 1979, 16쪽 이하)

이러한 연구프로그램에 따라 조절이론가들은 자본관계의 논리적 구조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역사운동의 내적 계기로 행위하는 개인과 계급의 사회적 실천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의 다이나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절론자들은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전후 황금기의 특수한 축적메카니즘의 역동성을 해명하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조절이론의 연구프로그램은 축적률의 붕괴, 임금, 생산성, 이윤, 가격, 생산의 "상대적 응집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분석범위를 확대시켜나갔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라는 "우연한 역사적 발견물"(리피에츠, 1991, 34쪽)을 확인하게 된다.

축적체제 개념에는 생산 및 노동조직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에 관한 방법뿐만 아니라 자본 재생산의 형태, 임금관계의 형태, 계급구조의 형태, 사회적 노동의 집합 형태, 세계시장으로의 통합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형태들은 재생산구조의 상대적 안정화를 위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절이 요구된다. 조절은 복잡한 재생산 상관계의 구성요소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방법과 종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조절양식은 축적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된다. 이 두가지 범주에 의한 현대 자본주의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하여 축적체제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자. 아그리에따는 축적체제를 (1) 생산에서의 노동력 사용, (2) 임금규정, (3) 노동계급의 재생산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아그리에따, 1979 69~70쪽).

이 세가지 차원에서 사회 제관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져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축적체제를 '외연적 축적체제'와 '내포적 축적체제'로 구별하였다. 조절이론가들은 생산재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상호작용적 발전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외연적 또는 내포적이라는 구별을 하며, 외연적 축적체제는 임노동자의 생활양식이 유지되거나 파괴되지만 소비규범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지 못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 축적체제는 농업부문에서



조절이론에 관련된 번역서 두권.

집중적으로 발전하며, 산업부문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내포적 축적체제는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생활양식 즉 새로운 사회적 소비규범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자본주의 발전을 축적체제의 이행으로 파악하고, 그 이행이 노동과정의 변형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력 재생산의 포괄적인 변형을 추구할 때 이뤄진다는 조절론자의 '외연적 축적'에서 '내포적 축적'으로의 단계론은 국가 독점자본주의론과는 달리 단계구분의 기준을 자본의 형태가 아닌 임노동 관계의 변화에 두고 있다. 축적체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노동관계의 변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임노동관계가 현대자본주의적 축적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절론자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조절이론에서는 (1) 자본의 관점 (2) 생산력 발전의 관점 (3) 노동자계급의 관점 (4) 소비재 상품의 관점이라는 4가지의 분석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4가지 관점에서의 임노동관계의 분석은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 노동과정 등은 물론 소비양식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임노동관계의 포괄적인 이해는 임노동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조절이론의 해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임

노동관계는 생산규범과 소비규범이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며 이 관계의 변용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생산이 두 부문(생산재 부문과 소비재 부문)에서의 잉여가치 생산방법을 변화시키고 두 부문의 응집력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포적 축적체제로의 임노동 관계의 변용은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가능케 하여 임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들 두 부문이 응집력이 강화되어져 안정된 축적체제를 만들어내고, 이에 조응하여 조절양식도 '경쟁적 조절양식'에서 '독점적 조절양식'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조절이론가들의 일반적 주장이다.

이러한 변용과정에서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조절이론에서는 포드주의를 생산과정과 소비양식간의 결합원리로 정의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존재조건의 변화'와 '노동과정의 변용' - 생산조건과 결합된 사회적 소비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 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빠스칼 삐티(Pascal Petit, *Slow Growth and the Service Economy*,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6, 48쪽)는 조절이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조건과, 또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양식의 불필요한 축진 및 이행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작업조직, 숙련도와 고용 또는 임금과 사회적 이윤간의 관계를 종합한 개념이다"

조절이론의 양극화

아그리에따와 리피에츠는 「자본론」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념과 범주들을 보다 구체적인 '중위개념' 들에 매개시켜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절이론가들이 신고전학파의 일반균형이론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적유물론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브와예(조절이론, 정신동 옮김, 학민사, 1991)는 독일 역사학과와 케인즈-칼레키의 이론적 전통에 기초하여 제도, 구조, 규범 등의 범주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개념화하였다.

삐티(P. Petit 1986, 24-48쪽)에 의하면 가격론적 조절이론은 아담 스미스-영-칼도아의 전통과 뒤르켐의 전통을 결합한 산물로 평가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정도와 노동조직의 방법과 형태가 시장의 크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혁신과 과잉혁신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산규범과 소비규범을 확대시켜 시장을 팽창시킴을 의미한다. 즉 이 이론적 전통은 생산성 증대→가격인하와 경쟁력 강화; 내수시장 구매력 증대→시장확대라는 인과의 연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근대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는 분업의 발전과 함께 조직적 연대(사회적 통합의 산물)로 강화되면 생산이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확대가 이뤄진다는 입장이 다.

이 두가지 이론사적 전통을 수렴하여 브와예는 '포드주의'론을 정식화한다. 생산성 상승→실질임금상승→임노동자의 소비수요증대→생산부자의 증대→생산성 상승이라는 자기완결적 포드주의론은 (1) 생산성 증대와 실질임금의 상승관계에서의 '포드주의적 타협' (2) 실질임금과 소비수요 증대의 관계에서 대량소비 규범의 존재 (3) 수용에 조응하는 투자행동 (4) 구상과 실행이 분리를 원칙으로 한 '포드주의적 노동편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4가지 전제조건들의 상호 정합적 결합이 戰後 서구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가져온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브와예는 조절을 "주어진 사회에서 제도와 관습의 결합이 생산과 소비간의 접합수단으로 기존의 경제체제의 재생산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기에 이른다. 구조와 제도/규범의 종합

적 결합을 지향하고 생산과 소비간의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접합을 강조하는 가격론적 조절론자들은 포드주의적 축적과 조절의 인과연쇄를 마르크스 재생산도식의 사회이론으로 해석함으로써 분석의 영역과 의미를 확산시켜나갔다. 그러므로 조절은 극단적으로 생산영역과 분배 또는 유통영역에서 이뤄짐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가치론적 조절이론이 생산영역에 기초하고 있는 데 비해 가격론적 조절이론은 유통론적 입장에서 있음을 뜻한다.

조절이론의 한계

조절이론의 성과가 곧바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난관이 있다. 역사적 발전물인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의 생산방법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조절을 포함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축적론'이라는 배타적 이론들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간의 상관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축적체제 없는 조절도 없고 조절 없는 축적체제도 없다는 '상호성'과 균형적 통일로부터 불균형적 탈구로의 '자율성' 또한 동시에 인정하는 이론적 혼란이 내재하게 된다. 이밖에도 축적과 조절의 조화와 불균형 즉 성장과 위기를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사적 사회구성체의 변화와 발전을 법칙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혼돈에 빠뜨리고, 역사적 과정을 사후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험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절이론이 비록 여러가지 이론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직면한 이론적 무기력증을 벗어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개방적 성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어진다. 또한 조절이론가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중핵을 유지하면서 보호대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더 발전적인 이론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